

10/3/21

설교 제목: 르비딴에서의 두 사건, 호렙산 반석의 생수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7 장 1-16 절

(출 17: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딴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 17: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 17:3)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대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 17: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출 17: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출 17: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 17:7)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출 17: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딴에서 싸우니라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대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7: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출 17: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딴에서 겪은 두 사건, 호렙산 반석의 생수 사건(1-7 절)과 아말렉과의 전쟁(8-16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건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자자손손 전하기 위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때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닛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닛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기념하여 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같이 우리도 당신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딴에서 겪은 호렙산 반석의 생수 사건을 보겠습니다.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발행하여 르비딴으로 가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 17: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딴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딴’이라는 말은 ‘쉬는 장소’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간 길에도 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원망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이나 낙망을 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얼마 전 마라 사건과 만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건만 당장 마실 물이 없자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불평이나 원망 정도가 아니고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출 17: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관을 만날때마다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비신앙적이며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는 지도자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공연히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신들과 자녀와 가축까지 죽게 만든다고 원망을 합니다.

(출 17:3)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경우 성도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는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출 17:4) 모세가 여호와에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지도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을 수 없었기에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출 17: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출 17: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은 놔두고 장로들만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곳입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한 것은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나일 강을 피로 물들게 한 이적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심으로 지팡이를 통하여 또 다시 이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호렙산 반석의 생수 사건은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갈증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해갈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이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출 17:7)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맛사'는 '시험하다' '므리바'는 '불평하다'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은 식수 문제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지은 것입니다.

호렙산 반석의 생수 사건 이후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앞에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출 17: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들로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혹시나 자신들의 목초지를 차지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모세의 지도로 생전 처음 해보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 '눈'의 아들이며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언급되는데 모세가 그에게 전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모세의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전황을 똑똑히 분별할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육체적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영적 전쟁터에 나선 것입니다.

모세, 아론, 훌이 함께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조력자가 되어 합심해서 기도 했습니다.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7: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고 따라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모세 아론 훌의 합심 기도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아론과 훌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지치기 쉬운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 도와주는 동역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먼저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후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당신이 영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은 지구 상에서 도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가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장기간 행진하느라 피곤해진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신 25:17)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 25:18)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찢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25: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의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말세에 멸망당하게 될 마귀의 최후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출 17: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닛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함은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끊임없이 전투를 하며 삽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빉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